

# 自然과 人間 조화에서 幸福 찾아

<나무와 산, 인간이 조화이뤄>



農博 任慶彬

묘목, 비료공급을 국가가 부담하는 制度 아쉬워

■韓國林學會의 役割이라할까 주로 어떤일을 하는 곳인지요?

學會라 하면 다른 學會와 마찬가지로 學會 자체의 뜻은 같겠습니다.

즉 學會는 어떤 분야에 관련된 學者들, 研究하는 학도들이 모여 그간 自己들이 研究한 結果를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學術誌에 發表함으로써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평가를 받아 여러가지 學問의 종합적인 결말을 얻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한국임학회에서도 주로 각大學 研究機關에서 研究한 業績을 우리나라 林學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그사람들의 집약된 하나의 뜻으로 뭉쳐보자는 것이 林學會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學會誌 심포지움 세미나를 통해, 外國人들과 學術交流를 통해서나 自己의 研究한 學問(學術)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政府나 林業人들이 하고 있는 여러가지 技術의 內容을 평가하고 기술문의에 대한 검토를 하는 것도 學會의 큰 역할입니다.

■任會長님께서 林學을 전공하시게 된 연유는

제가 林學을 전공한 특별한 理由는 없습니다. 제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林學을 전공하게 된 것 같으나 아마도 원래 제가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

인것 같습니다.

■林學과 造景學과의 관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造景學이란 말의 정의가 문제입니다만 造景은 어떤 建築物이라든가 혹은 길을 닦는다는 것을 造景學에 넣어 생각한다면 林學과 造景學과의 관계는 좀 멀어집니다만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조경학이 원래 人間이 사는 환경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라면 林學(산, 들, 공원 등에 나무를 심는 것 등) 역시 우리의 환경을 美化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林學과 造景學을 명확히 규정짓기는 어려운 일이며 이 두가지 學問은 서로 중복되는 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와 산과 人間의 조화에 대해서

참으로 좋은 이야기입니다. 산에는 나무가 있어야 되고 인간이 살고 있는 곳에도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外國의 경우를 보더라도 나무와 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나라는 부강한 나라이고 그렇지 못한 나라는 부강하지도 못하고 인간의 살림살이도 메마르다는 것을 생각할때 나무, 산, 人間은 뭉쳐 生命있는 하나로서의 存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國民들도 산에 있는 나무는 나의 生活와 별다른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人間은 自然과 조화되는 가운데 살

아야만 건장한 것이며 精神的 그리고 物質的 幸福이 그곳에서 나온다는 것을 심각하게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世界各國의 林業政策에 대해서 說明해 주시면

이 자리에서 外國의 林業政策을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번거롭지만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산에 나무를 심고자 할때 우리나라의 경우 그 묘목은 사야 되겠지요. (물론 보조도 있겠지만) 나무를 심을때는 내가 심던지 아니면 人夫를 사서 심어야겠지요. 또 비료를 줄때도 비료를 사서 주어야겠지요. 허나 日本의 경우는 묘목代, 비료代, 人件費等を 國家에서 대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대주고 있는나? 그것은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대단히 重要的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무를 심는 사람을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國民, 國家를 위해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내가 산을 갖고 있는데 그 산에 나무를 심지 않고 있는 것은 나 개인에 관한 問題가 아니라 國家的, 國民的인 問題가 되는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自己自身을 위한 것은 물론 社會的인 공헌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이러한 다른나라의 林業政策을 배우고 본받아야 하겠읍니다.

그외의 캐나다, 美國, 유럽의 林業政策의 최근동향은 木材의 生産 즉 物質生産위주의 林業에서 정책이 변천되어 人間의 生活환경적인 면을 강조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76年度 韓國林學會의 事業計劃은

韓國林學會는 대단히 큰 學會입니다. 많은 회원들과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금년도의計劃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學術會誌를 1년에 4번 發刊, 세미나, 심포지움을 열어 어느 한 分野에 대한 集中的인, 學術的인 검토를 할計劃이고 또 우리 林業에 인접된 다른 科學에 종사하는 분들을 초빙해서 林業에 관련된 分野의 內容을

알도록 모색해 보자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有能한 林學徒의 研究를 激勵하는 일도 잊을 수 없습니다.

■韓國林學會의 會員은 몇명이고 주로 어느 分野에서 일하는지요.

우리 學會 會員數는 400여명 정도이며 大學校 教授 각 研究所의 研究관들 대학이아닌 농림전문학교, 농업고등학교등 教育에 종사하시는분, 그이외의 林業에 경험을 쌓고 관심을 가진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學會나 會員들이 林學界에 대해 공헌한일, 영향을 끼친일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林學界에서여러가지 技術的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때 우리學會나 會員들에게 많은 문의가 옵니다.

우리 林學會 會員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의 뛰어난 學術, 技術, 경험등을 가진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國家 혹은 여러가지 林業에 관계되는 단체에 응역 技術解決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임진강유역의 林業開發의 妥當性을 分析했다든가 또는 우리나라 造林의 成果를 조사검토했다든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外國의 學者를 초빙해서 學術을 交流하였고 또 國際學會에 나가서 우리나라 林學의 實力을 誇示한 것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韓國林學會의 國際的 活動은 어떤 活動이 있는지요.

韓國林學會의 國際的인 活動이 곧 會員들의 活動에 연결되겠습니다. 우리 임학회는 이러한 뜻에서 비교적 活潑한 國際的 活躍을 해왔습니다. 국제적으로는 國際林業團體聯合會(IUSF, International union of societies of Foresters)라는 것이 있는데 물론 한국 林學會도 그 一員인 것입니다. 이러한 國際團體의 한 元素로서 우리 학회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며칠전에도 IUSF에서 우리 學會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日本이나 그밖의 友邦國家의 林學會와 우리 學會를 좀더 밀접하게 연관시켜 볼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現在 任會長님께서 研究中인 課題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가 지금 研究하고 있는 것은 물론 나무입니다. 우리나라에 있어 나무들이 自然的으로 나고 있는 自然集團에 대해 그것의 유전적인 변화가 거꾸나 하는 것과 공해 대기오염으로 말미암아 나무들이 많은 시달림을 받고 있는 경우 그것이 곧 人間의 환경에도 관계되고 있습니다만 토양, 空氣, 물의 오염이 나무의 生活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나 이런것이 당면한 저의 研究課題라고 볼 수 있겠지요.

■學會와 林學界의 育成方向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셨으면

學會는 學問을 전공하는 學者 研究者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는 會費를 갖고 學會誌도 나오고 합니다(물론 國家에서도 보조를 하지만) 그러나 會員들의 會費로선 學會의 운영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왕성하게 學會의 活動을 해야 되겠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財政수준에 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國家에서도 學會를 育成하는데 努力을 해 주길 바라고 林業에 관련된 企業 團體에서도 學會育成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는 기풍이 아쉽다고 봅니다.

또 학회자체에서도 林業界를 위해 여러가지 技術的 및 學術的인 면을 통해 공헌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특히 林學界나 林業界는 눈으로 보이는 효과의 發生이 단시일내에 보게 되질 않고 오랜 뒤에 나타나는 것이기에 우리의 視界에서 소외되는 일이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크게 막아나가 林業界와 林學界의 育成에 크게 도움이 되어야겠습니다.

■林學者로서 愛林과 植木에 對하여 政府, 國民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은

흔히 “산에 나무를 심고 키우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이다”, “그것은 技術的으로 어려운일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쉬운일이고 技術的인 일이 아니라면 왜 우리나라의 산이 밀림을 形成하고 좋은 숲을 만들지 못했느냐? 이런것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이 技術的인 것이고 좋은 숲을 가꾸고 만들기 위해 어려운 學問이 그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산을 만들기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나무를 심는 것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구덩이를 파고 나무를 그안에 넣고 흙을 덮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진정한 意味에선 더욱 깊은 意味가 그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國民은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꾸는 것이 대단한 技術的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政府·國民들은 숲을 만드는 것은 당장의 效果보단 그런일을 하므로써 우리 國家·國民에게 주는 效果가 은근히 至大하다는 것을 알고 꾸준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우리가 努力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林產資源의 開發과 活用に 對하여

우리나라는 해마다 많은 林產資源을 外國에서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차 이것을 外國에 의존만 해야 되느냐 하는 問題(완전탈피는 못하지만 일부분의 탈피라도)에 있어 상당량을 자급자족 하도록 努力해야 되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林產資源을 만드는데 적극 힘쓰고 努力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재 存在하는 林產資源을 효율적으로 利用한다는 것—쓸모없는것은 쓸모있는 것으로, 더욱 더 쓸모있는 것으로 하는 技術的 開發은 대단히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런것을 研究하는 것이 林學者들에게 부여된 하나의 의무가 아니겠어요?

■ 우리나라 산을 무성한 숲으로 만들기 위해 권장하는 수목의 종류는

이것은 그 地方의 기후 토질의 조건에 따라 알맞는 나무를 골라야 하겠읍니다.

우리나라는 國土의 면적이 좁지만 제주도, 전남, 경남의 남해안은 난대 아열대 지방으로 표현할 수 있고 휴전선부근의 강원, 경기도의 고지는 상당히 추운 地方으로 좁은 國土에 비해 그안에서의 기후의 변화가 상당히 많읍니다. 그리고 산의 경사, 지세가 복잡해 곳곳에 심을 수목의 종류는 각각 다릅니다. 남쪽의 경우 녹나무, 가시나무, 잣밤나무가 있고 북으로오면서 오동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해송등이 장려수목으로 되고, 더욱 북쪽에선 잣나무, 낙엽송 이외에 소나무 종류가 있지만 최근 소나무 종류는 해충이 많아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열매를 얻기 위해선 밤나무, 호도나무, 대추나무가 있고 장차 開發될 만한 유실수도 많을 것 입니다. 그리고 국소적으로 활엽수를 골라 심고 오동나무, 대나무, 율나무등 특수한 가치를 지닌 나무들은 그 특색에 맞는곳을 골라서 심어야 되겠지요.

■ 任會長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나무로는 어떤 것을 들 수 있는지요.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나무든지 다 좋아합니다. 임학을 전공하다 보니 특정한 나무에 편견없이 모든 나무 全部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어떤 한가지 나무를 꼬집어 낼 수 없읍니다.

■ 科學的인 측면에서 나무에 대한 관심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제자신이 나무에 대해 研究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나무에 대해 모르는 점이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제생각에는 나무에 대한 연구를 하지만 그것은 좁고 깊게 研究한 것 같아, 좀더 폭넓고 一般性을 띤 연구에는 소홀해 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나무에 대한 研究中 가장 重要한 것은 全體를 보는 가운데 그 一部를 보고 研究해야지 一部를 보고 전체를 못보는 연구는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린 항상 전체의 숲을 내다보면서 그안에 있는 나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것이 어떤 意味를 갖고 있는지를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전한 판단이 생겨나오고 시행착오를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任會長님의 취미는 여가는 어떻게 보내시는지요.

저의 취미로는 책을 읽는 것, 무엇인가를 읽는 것과 구래어 말한다면 사진촬영 입니다. 저의 사진 기술은 사진촬영을 취미로 하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지만 그러나 왠지 사진 찍는 것을 꽤 좋아합니다. 또하나는 여행입니다. 버스나 기차나 무엇인가를 타고서 내가 生活하고 있지 않는 색다른 곳에 가보는 것입니다. 낯선곳을 본다는 것은 확실히 공부가 됩니다.

허나 이런 취미들을 자주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이런 취미生活을 살려볼까 합니다.

■ 學會나 會員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임학회 會員 모든분들은 열심으로 모든 일을 잘해주시고 또 各分野에 있어 훌륭한 研究들 또 실물에 대해 잘하고 있어 더 말할 것이 없읍니다.

허나 學會를 통해 自己의 研究한 結果와 경험하고 있는 것을 많이 연마하고 그 水準을 높이는 뜻에서 學會를 많이 利用하고 學會를 育成하고 學會에서 하는 일에 적극 參與해서 학회의 한 會員으로서 내가 存在한다는 긍지를 갖고 그 뜻을 잘 인식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이런 뜻에서 직접 林學에 관련되지 않는 분이라도 林業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林業의 더욱 올바른 姿勢를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